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Self-esteem and Stress in a Child of Deficiency Family

박 성 옥 · 신 귀 순 · 박 정 옥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전공

Park, Sung Ok · Shin, Kui Soon · Park, Jung Ok
Major in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Abstract

The recent study was examined the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elf-esteem upon the types of deficiency, the genders, the grade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7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4th, 5th and 6th gra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children's stresses were related to their self-esteem and their self-esteem was explained mostly by the stress from home environment. Second, children's stress upon the birth order was higher in the first than in the second and the third birth order. Third, their self-esteem was explained mostly by the support from friends, teachers, and academic fields. Forth, children's stress of divorced and separated families as a reason of deficiency was higher than their stress upon the separation by death.

Key words : stress, child of deficiency family, self-este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김경연, 1987 ; 김희화, 1998)라고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건전한 인성발달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Harter, 1982; Wylie, 1979),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중의 하나(Manning, 1989)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 즉,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에게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대상인 어머니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되는 또래가 중요한 타인이 된다.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생의 일부로(Selye, 1984),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성인뿐만 아니고 아동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성장 발달 과정에서 많은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의 시기는 발달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서, 주요한 생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주위의 기대감과 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성인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Corresponding author : Shin, Kui Soon
Tel : 011-9628-7403 Fax : 042-274-3267
E-mail : manim0306@hanmail.net

그러나 아동은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당수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거나 불건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천민필, 1993).

아동에게 가정은 개인의 성격형성의 원동력이 되어 자녀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와 급속한 사회변동은 현대가족의 가족구조 및 역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은 중년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켜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게 하므로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가족해체를 촉진시켜 결손가정을 증가시키고 있다(조희선, 1996).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부나 모를 잃게 됨으로써 동일시 대상과 사회적 지지자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가정은 외부에서 생긴 갈등을 대화와 신뢰를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이들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강두원(1989)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격리불안을 겪는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문제 발생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결손가정아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결손가정의 유형과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이유와 유형, 아동의 성별 그리고 학년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결손가정 아동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개인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성별,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 결손가정 아동

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결손유형별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3) 결손이유별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손가정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는데 형태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이 있다. 기능적 결손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해외 취업을 비롯한 직업에 따른 아버지와의 별거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시간이 줄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자녀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양육이 결손되어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형태적 결손가정은 배우자가 질병,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훈육과 보호에 차질이 일어나게 된 경우로 편모가정, 편부가정, 조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계부·계모가정 등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유형을 형태적 결손가정을 중심으로 편부, 편모, 조부모가정으로 제한하였다.

송양숙(2001)은 편부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보다 자아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정원식(1983)은 모성실조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심리적 양육 및 지도의 결핍으로 기인되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성격 형성의 왜곡 및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부적응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2. 결손가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모습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관심과 인정에 대한 판단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이훈진, 1999). Pervin(1970)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태도나 개개의 상황에 처해있는 특수한 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 특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했고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평가적 차원이라고 말하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관해서 알고 있는 태도에서 표현되는 가치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차원으로서의 지속성이 있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식(1965)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기자신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갖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Reasoner(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고 자기행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미래에 대한 이상을 동기화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를 잘 이용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재인용. 한미라, 1996).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 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끼며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그의 행동도 불안하고 소극적이다(최희웅, 1977).

김태준(1992)은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양연순(1994)은 결손가정 아동보다 정상가정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 환경가운데서도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아동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권영미(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상 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직 혼란스러우며 이혼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로 자기를 낮추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용문(1985)은 결손가정은 정상 가정에 비해 가족관계가 거부적이며 친애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자녀의 성격적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 결손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성격적 적응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결손가정 환경은 아동 스스로 지니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정서불안이나 문제행동, 비행같은 부적응마저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손가정과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학문마다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1850년대에는 스트레스 개념을 사람에게 국한시켜 사람의 신체기관과 정신력에 생기는 긴장이라고 정의하였다(오가실, 1985). 그 후 Seyle가 의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스트레스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심리학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리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생리적,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증거가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가정환경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형제자매 관계,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상태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 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임규혁, 1986). 아동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

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준에서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양숙(2001)의 연구에 의하면 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 건강, 자신감등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편부, 편모 가정의 아동보다 양친 모두 없는 결손가정 아동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아동 각각 83명, 89명 총 172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를 재작성하여 사용한 공태수(1998)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Cronbach'a 계수=.70) 24문항, 친구와 타인간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사회적 자아(Cronbach'a 계수=.81) 8문항, 가정에 의해 표현되는 가정적 자아(Cronbach'a 계수=.78) 8문항, 학교에서 적응에 관련된 학업자아(Cronbach'a 계수=.70) 8문항 등 4개의 하위 척도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유안진(1995)의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백경애(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영역 8문항, 가정환경영역 7문항, 친구영역 7문항, 학업영역 5문항, 교사 및 학교영역 7문항씩 총 34문항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Cronbach'a 계수는 .71, .72, .77, .85, .65, .82이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배경

N=172

변수	N	백분율(%)
학년	4	29.7
	5	34.3
	6	36.0
성별	남자	48.3
	여자	51.7
가족유형	편부가족	33.1
	편모가족	45.3
	조부모가족	21.5
한가정이 된 이유	직장관계	2.9
	별거·이혼	67.4
	사별	29.7
형제수	1	20.9
	2	56.4
	3이상	22.7
형제순위	1	48.3
	2	41.9
	3이상	9.8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03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25일간이었다. 조사지역은 대전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담임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PC WIN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개인적인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나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설명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점중에서는 가정환경 스트레스($t=-4.5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다른 요인과는 유의한 수준이 거의 없었다. 즉, 여아의 평균이 1.98로 남아의 평균 1.5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에 더욱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의 스트레스가 여아에게는 다른 행동으로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자아존중감($t=-2.85, p<.01$)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여아는 사회자아존중감에서의 평균값이 2.14로 남아의 사회자아존중감의 평균값 2.0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부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에 더욱더 예민하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1.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2)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변인	내용	남자		여자		t값
		M	SD	M	SD	
스트레스	부모영역	1.96	.52	2.15	.76	-1.96
	가정환경	1.56	.49	1.98	.69	-4.59***
	친구영역	1.82	.74	1.89	.70	.71
	학업영역	2.03	.62	2.19	.72	-1.52
	교사 및 학교영역	1.53	.47	1.49	.51	.52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6	.19	2.03	.17	.99
	사회자아	2.03	.27	2.14	.25	-2.85**
	가정자아	1.88	.22	1.81	.29	1.79
	학업자아	1.92	.26	1.97	.26	-1.35

* p<.05 **p<.01 ***p<.001

표 3.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인	내용	4학년	5학년	6학년	F값
		M(SD)	M(SD)	M(SD)	
스트레스	부모영역	1.82(.60)a	2.12(.56)b	2.14(.50)b	5.56**
	가정영역	1.56(.49)a	1.81(.65)b	1.92(.68)b	4.72*
	친구영역	1.80(.74)	1.90(.77)	1.86(.66)	.26
	학업영역	1.97(.76)	2.22(.60)	2.13(.67)	1.87
	교사 및 학교영역	1.44(.47)	1.62(.49)	1.45(.49)	2.44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6(.19)	2.06(.18)	2.02(.17)	1.15
	사회자아	2.05(.29)	2.11(.26)	2.09(.24)	.78
	가정자아	1.82(.23)	1.86(.27)	1.84(.29)	.24
	학업자아	1.94(.27)	1.93(.27)	1.96(.24)	.27

a,b 는 사후검증 Duncan의 결과임. * p<.05 **p<.01

으로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에서는 부모영역 스트레스(F=5.56, p<.01), 가정영역 스트레스(F=4.7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도 수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부모영역 스트레스에서 6학년이 평균 2.14, 5학년의 평균 2.12, 4학년의 평균 1.82로 6학년 아동이 부모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영역에서는 6학년 아동의 평균이 1.92로 5학년 아동의 평균 1.81, 4학년 아동의 평균 1.5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6학년 아동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스트레스 인식이 다른 학년보다 더 예민함을 보여준다. 사후검증 Duncan에서 부모영역 스트레스와 가정영역 스트레스 모두에서 5, 6학년 아동이 4학년의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형제수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는 다음 <표 4>와 같다.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특별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자아(F=2.88,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표 4. 형제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인	내용	1명	2명	3명이상	F값
		M(SD)	M(SD)	M(SD)	
스트레스	부모영역	2.18(.55)	2.04(.62)	1.89(.40)	2.49
	가정영역	1.87(.67)	1.76(.64)	1.72(.59)	.61
	친구영역	2.03(.80)	1.76(.67)	1.93(.74)	2.07
	학업영역	2.29(.73)	2.06(.68)	2.09(.62)	1.64
	교사 및 학교영역	1.67(.49)	1.46(.48)	1.47(.48)	2.84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5(.19)	2.04(.17)	2.05(.19)	.03
	사회자아	2.20(.25)	2.07(.25)	2.02(.29)	4.90
	가정자아	1.88(.23)	1.80(.26)	1.91(.29)	2.88**
	학업자아	1.94(.27)	1.93(.25)	1.97(.28)	.33

* p<.05 **p<.01

표 5. 형제순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인	내용	첫째		둘째이상		t값
		M	SD	M	SD	
스트레스	부모영역	1.77	.66	1.78	.61	-.14
	가정환경	1.97	.78	1.74	.66	2.05*
	친구영역	2.22	.66	2.01	.67	2.03*
	학업영역	1.61	.52	1.38	.42	3.20**
	교사 및 학교영역	2.10	.55	1.97	.58	1.46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5	.17	2.04	.19	.47
	사회자아	2.10	.26	2.06	.26	1.02
	가정자아	1.85	.27	1.83	.26	.31
	학업자아	1.94	.25	1.95	.28	-.25

* p<.05 **p<.01

지 않다. 형제수가 3명 이상인 아동의 평균이 1.91로 1명인 아동의 평균 1.88과 2명인 아동의 평균 1.8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순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형제순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형제순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형제순위를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t=2.05, p<.05), 친구영역 스트레스(t=2.03, p<.05), 학업영역 스트레스(t=3.20, p<.01)에서 첫째가 둘째나 셋째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2. 결손이유와 결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1) 결손이유별(별거나 이혼, 사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표 6>을 살펴보면,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요인 중 부모영역 스트레스(t=2.3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결손이유중 별거·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아동 평균이 1.86으로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이 된 가정의 아동

표 6. 결손이유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인	내용	별거·이혼		사별		t값
		M	SD	M	SD	
스트레스	부모영역	1.86	.64	1.62	.59	2.31*
	가정환경	1.91	.75	1.75	.63	1.34
	친구영역	2.09	.70	2.16	.62	-.59
	학업영역	1.51	.50	1.51	.47	.02
	교사 및 학교영역	2.08	.58	1.96	.56	1.09
	전체 스트레스	1.89	.49	1.80	.42	1.21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6	.17	2.01	.19	1.79
	사회자아	2.11	.27	2.05	.23	1.22
	가정자아	1.84	.27	1.83	.25	.31
	학업자아	1.94	.26	1.96	.26	-.61
	전체 자아존중감	1.99	.15	1.96	.15	.93

* p<.05

표 7. 결손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

변인	내용	편부가족	편모가족	조부모가족	F값
		M(SD)	M(SD)	M(SD)	
스트레스	부모영역	2.07(.57)	2.04(.57)	1.96(.56)	.49
	가정영역	1.83(.68)	1.69(.57)	1.87(.69)	1.48
	친구영역	1.81(.72)	1.86(.71)	1.92(.76)	.23
	학업영역	2.20(.71)	2.09(.73)	2.04(.51)	.79
	교사 및 학교영역	1.58(.52)	1.47(.47)	1.46(.46)	.93
	전체 스트레스	1.90(.49)	1.83(.45)	1.87(.46)	.37
자아존중감	일반자아	2.05(.20)	2.05(.16)	2.03(.18)	.27
	사회자아	2.08(.29)	2.05(.24)	2.17(.25)	2.51
	가정자아	1.87(.28)	1.86(.25)	1.76(.25)	2.61
	학업자아	2.01(.28)	1.92(.24)	1.91(.25)	2.85
	전체 자아존중감	2.00(.17)	1.97(.14)	1.96(.13)	1.06

평균 1.6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결손이유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손이유의 원인인 별거나 이혼, 사별 등의 원인이 서로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2) 결손유형별(편부,편모,조부모)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차이

결손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인식은 다음 <표7>과 같다.

결손유형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결손유형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나 자아존중감형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스트레스에서는 부모영역과 학업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에서 편부가족의 평균이 다른 가족형태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가정영역과 친구영역에서는 조부모가족의 평균이 다

른 가족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반자아와 가정자아, 학업자아에서는 편부가족의 평균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아는 조부모가족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3. 결손유형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1) 편부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편부가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편부가정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편부가정의 형태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편부가정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가정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52**	-							
학업스트레스	.59**	.25	-						
교사스트레스	.45**	.66**	.38**	-					
부모스트레스	.55**	.33**	.67**	.49**	-				
일반자아	-.06	-.21	-.04	-.13	-.22	-			
사회자아	.00	.04	.07	.08	-.02	.29*	-		
가정자아	.22	.12	.16	.11	.12	.17	.14	-	
학업자아	.13	-.17	.22	-.06	-.05	.36**	.25	.26	-

*p<.05 **p<.01

표 9. 편모가정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가정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41**	-							
학업스트레스	.46**	.40**	-						
교사스트레스	.35**	.60**	.48**	-					
부모스트레스	.48**	.28**	.57**	.38**	-				
일반자아	-.17	-.23*	-.08	-.24*	-.07	-			
사회자아	.21	-.10	.12	.02	-.25*	-.01	-		
가정자아	.03	-.02	-.24*	.09	-.34**	.21	.12	-	
학업자아	.08	-.17	.14	-.03	.18	.18	.19	.33**	-

*p<.05 **p<.01

스트레스 변인들끼리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중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r=.67$, $p<.01$), 이것은 부모가 아동에게 주는 스트레스중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간섭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반자아존중감과 사회자아존중감($r=.29$, $p<.05$), 학업자아존중감($r=.36$, $p<.01$)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다른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일반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자아존중감도 높고,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 편모가정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표 9>에서 친구스트레스에서는 일반자아($r=-.23$, $p<.01$)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가정자아존중감($r=-.24$, $p<.05$)과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스트레스는 사회자아존중감($r=-.25$, $p<.05$), 가정자아존중감($r=-.34$, $p<.01$)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 일반자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가정자아존중감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변인들끼리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중 친구스트레스와 교

사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r=.60$, $p<.01$),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교사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는 가정자아존중감과 학업자아존중감($r=.33$, $p<.01$)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다른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가정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3) 조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조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표 10>과 같다.

친구스트레스에서는 사회자아($r=-.47$, $p<.01$)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자아존중감($r=-.34$, $p<.05$)과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변인들끼리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중 친구스트레스와 교사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r=.59$, $p<.01$),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관계가 많은 교사와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조부모가정의 아동은 자아존중감에서 특별히 변인들끼리의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0. 조부모가정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가정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38**	-							
학업스트레스	.08	.17	-						
교사스트레스	.34**	.59**	.40*	-					
부모스트레스	.77**	.43**	.23	.55**	-				
일반자아	-.05	.16	-.26	-.10	.05	-			
사회자아	.24	-.47**	.02	.09	.11	-.09	-		
가정자아	-.22	-.02	.09	.08	-.24	.04	-.02	-	
학업자아	.11	-.21	-.34*	-.21	.03	.09	-.03	.23	-

*p<.05 **p<.01

4. 결손이유별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관계

1) 별거·이혼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별거·이혼가정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별거·이혼가정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가정자아존중감($r=-.23, p<.01$)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정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교사와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r=.60, p<.01$), 이것은 아동들이 친구와의 스트레스가 교사와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반자아존중감과 사회자아존중감($r=.19, p<.05$), 학업자아존중감($r=.24, p<.05$), 가정자아는 학업자아($r=.33, p<.01$)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다른 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일반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자아존중감도 높고,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 사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결손이유중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사별가정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자아존중감($r=-.35, p<.05$)에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친구스트레스는 일반자아($r=-.38, p<.01$), 사회자아($r=-.29, p<.05$)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교사스트레스는 일반자아($r=-.35, p<.05$)와 부모스트레스는 사회자아($r=-.30, p<.05$)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하위영역들 중에서는 친구스트레스와 교사스트레스($r=.70, p<.01$)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가정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r=.61, p<.01$)과 두 번째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11. 별거·이혼가정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가정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45**	-							
학업스트레스	.52**	.35**	-						
교사스트레스	.40**	.60**	.48**	-					
부모스트레스	.54**	.35**	.62**	.49**	-				
일반자아	-.11	-.09	-.05	-.09	-.10	-			
사회자아	.04	.04	.04	-.05	.02	.19*	-		
가정자아	.04	.02	-.23*	.15	.12	.04	.02	-	
학업자아	.17	-.14	.11	.00	.05	.24*	.11	.33**	-

*p<.05 **p<.01

표 12. 사별한 가정에 대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가정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40**	-							
학업스트레스	.35**	.30**	-						
교사스트레스	.37**	.70**	.36**	-					
부모스트레스	.61**	.25	.41**	.38**	-				
일반자아	-.15	-.38**	-.11	-.35*	-.10	-			
사회자아	-.35*	-.29*	.15	.26	-.30*	-.07	-		
가정자아	.07	-.01	.16	.00	.25	.39*	.19	-	
학업자아	.03	-.21	.02	-.12	.17	.31*	.25	.25	-

*p<.05 **p<.01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반자아존중감과 가정자아존중감($r=.39, p<.05$), 학업자아존중감($r=.31, p<.05$)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5.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3>와 같다.

아동이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친구스트레스($\beta =-.33, p<.01$)에서 학업자아존중감의 높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구와의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업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적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해주는 스트레스 변인의 설명력은 학업자아존중감이 9%, 가정자아존중

표 13. 아동의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자아존중감	예측변인	B	β	F	R ²	상수
일반자아	가정스트레스	-.01	-.03	1.02	.03	2.16
	친구스트레스	-.01	-.06			
	학업스트레스	-.00	-.01			
	교사스트레스	-.04	-.11			
	부모스트레스	-.00	-.01			
사회자아	가정스트레스	.05	.12	.82	.03	1.86
	친구스트레스	.01	.04			
	학업스트레스	.00	.01			
	교사스트레스	-.02	-.04			
	부모스트레스	-.02	.05			
가정자아	가정스트레스	-.04	-.10	1.75	.05	1.67
	친구스트레스	-.02	-.05			
	학업스트레스	.07	.17			
	교사스트레스	.03	.05			
	부모스트레스	.05	.11			
학업자아	가정스트레스	.08	.19	3.26**	.09	1.91
	친구스트레스	-.12	-.33**			
	학업스트레스	.04	.10			
	교사스트레스	.03	.06			
	가정스트레스	-.01	-.01			

**p<.01

감이 5%, 사회자아 3%, 일반자아 3%로 그 설명력이 다소 낮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이유와 결손유형, 아동의 성별, 학년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하여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결손가정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개인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결과 가정환경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의 평균(1.98)이 남아의 평균(1.5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에 더욱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결손가정아동의 생활지도할 때 교사는 여아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 줌으로써 가정환경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부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에 더욱더 예민하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성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여아들에게 자신에 대해 자극을 많이 주면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검증에서는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스트레스는 4,5학년에 비해 6학년 아동이 부모영역과 가정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6학년 아동이 다른 학년보다 가정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예민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변환경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결손가

정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고학년일수록 상담활동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줌으로써 다가오는 사춘기 시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에서는 형제수가 3명 이상인 아동이 가정적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에서는 첫째가 둘째나 셋째보다 가정환경영역친구영역, 학업영역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결과 별거·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아동이 사별로 인한 결손 가정 아동 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별거나 이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간의 불화와 별거나 이혼 후에 생활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인식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시 결손이유에 따라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결손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편부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업적자아존중감이 다른 유형의 결손 가정 아동보다 높았고 조부모 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편부가정 아동이 편모나 조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편모가정과 조부모 가정의 아동은 부의 결손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으로 인해 압박감과 열등감을 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달리 적용한다면 상담활동에 더욱 큰 효과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일곱째, 결손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편부가정에서

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편부가정의 형태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모가정에서는 친구스트레스에서 일반자아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가정자아존중감과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스트레스는 사회자아존중감, 가정자아존중감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 일반자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가정자아존중감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조부모가정에서는 친구스트레스에서 사회자아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자아존중감과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결손이유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별거·이혼가정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가정자아존중감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정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사별가정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자아존중감에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친구스트레스는 일반자아, 사회자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교사스트레스는 일반자아와 부모스트레스는 사회자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여덟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친구스트레스에서 학업 자아존중감의 높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구와의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업에 대한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I.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범위가 대전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사가 실시된다면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제한하였는데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면접법, 관찰법, 투사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성별, 유형별 그리고 결손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서 상담활동에 적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결손가정아동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 결손가정아동,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참 고 문 헌

- 강두원(1989). 가정환경·학업성취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공태수(1998).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창의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률(1987). 교육교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 김태준(199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적응요인 및 이탈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 백경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양숙(2001). 결손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양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순(199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가실(1985). 스트레스와 적응이론. 월간간호 Vo.9, No.2, 52-58.
- 임규혁(1984).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정원식 · 이상노 · 이성진(1996).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143-177
- 정원식(1988). 인간과 교육. 교육출판사.
- 조선일보. 이혼증가와 버려지는 아기수 증가. 1998년 4월 28일 사회면
- 조희선(1996). 편부모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방안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 한국가족관계학회.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결손가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희웅(1978). 결손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Coopersmith(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 Hater,S.(1982).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275-385).
- Manningm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ren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rat Studies.
- Lazarus, R. 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Co.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tion University press.
- Selye, H(1984). *The stress of life. revised edition*. New York: McGraw-Hall, Inc..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3. 7. 9 접수; 2003. 8. 29 채택)